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614호 현대불교 2007년 2월 7일(음력 12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마음 도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운 세태가 다가옵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토론하고 음미하고, 마음 도리를 연구하는 데에 몰두하는 도반으로서 만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중반기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우리 개별적인 의의는 낱을 수 있을지언정 포괄적인 의의는 낱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중반기에 들어서서 세계와 더불어, 우주와 더불어 같이 포괄적인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대인이 될 수 있으면 좋으려만 그런 일이 드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가 다 그렇게 대인이 되었으면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조금도 쉬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연구할 단계가 못해서 개별적으로 연구했음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과학이라는 것도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으니,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과 어디로 돌아서 회전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근본 마음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심성의 활용이 있듯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마음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문제도 광대무변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 포괄적인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광대무변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가고음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이 진리가 특타해서 지구 바깥으로도 나갈 수 있고 우주 전체를 보는 것 없이 보고, 듣는 것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고 했죠. 그것은 이름으로서 얘기했을 뿐인데 활용하고 빛을 내고 여여하게 회전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전에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 화광주니 야광주니 하는 구슬로 말씀했습니다. 결립 없이 굴리는 데에 아주 여여하다는 뜻으로서의 빛 광주 또는 원광주, 해광주를 금강주에서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섯 가지를 책정하 즉, 누진통이 그렇게 다룬다는 것만 얘기했지, 금강주라는 것은, 그 다섯 가지 구슬을 굴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활용입니다. 활용! 활용을 하는 데는 그 구슬을 알지 못하고는 아니 된다. 그래서 용(龍)이 줄을 타고 오를 때에 구슬이 없으면 오르지 못한다 이겁니다.

인간도 무의 법, 유의 법을 회전하는데 법망에

생명체가 전부 움직여지고 있는 자체는 바로 진화력도 되지만 생존의 경쟁도 되고 생존의 부활도 되고 생존의 계발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음미해 본다면 아주 묘한 도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지금 시공이 없이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약한 생각 또는 미신의 생각으로서 아주 차원이 낮은 그런 행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생각이 얼마나 무서운데 아주 얇은 생각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어야만 하나!' 이런 겁니다. 첩보가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서 다 지혜가 나올 텐데 말입니다. 요거는 내 의견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잘 파악해서 들으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잘하려면, 한 발 떼어놓으면 한 발 떼어놓은 거는 없어지고 한 발이 또 되듯이, 우리가 지금 첩보 하면 벌써 육바라밀은 첩보가 집어먹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포함해서 있으니, 포괄적인 첩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여하고 보배로운 자기발전소에서, 물론 가설이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발전소는 본래 내 안에 있으니,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들어오게끔 돼 있는 게 아니라 본래 들어오게 돼 있는데 모르니깐 그걸 발견을 못해서 쓰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이거고, 저건 저거고, 요렇게 아주 실 사 없이 다가오는 그 나뭇을 우리가 작게 생각을 하면 나뭇이라고도 하고 윤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역력하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음미해볼 수 있는 문제는, 바로 그것이 그 안에 들어서 무서워 돌아가고 있으니, 이 돌아가고 있는 나뭇을, 무(無)와 유(有)를 한데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사유(四無四有)를 한데 합치면 팔(八)입니다. 시방세계에 무와 유를 한데 합치니 팔이 된다. 팔이 되니까 이게 여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첩보가 거기 또 팔에 포함된 겁니다. 팔정도(八正道)에 포함이 된 겁니다. 수레바퀴 돌아가듯이, 그걸 표현해 놓은 겁니다. 팔정도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것이 팔정도도 돌아가는 데에는

언제나 포함해서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 심성입니다. 그래서 그 심성을 포함해서 구정토(九淨土), 즉 말하자면 구경계(九境界), 구경계로 하여금 시방세계에 두루 회전이 될 때 불이(不二), 불이 법(不二法)이 거기에서 조성됨으로써 십이인연법을 넘어선 단계로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기보다도 여러분이 연구를 해보면, 말은 조금 다름지언정 뜻은 똑같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판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사람 사는 이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변천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계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살 양으로만, 먹고 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섭리로서 우리 계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한생각으로 회전을 할 수 있는 멋진 대인이 되어야!

다. 경쟁이 아니라 계발입니다. 지난번에 경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모르면 경쟁이고, 남아서면 계발입니다. 우리는 남을 죽이려고 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밀쳐려고 해서 밀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힘이 부족하면 스스로 밀리는 거죠. 누가 나쁘게 만들려고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환경에 따라서 나빠지는 거죠. 그러나 본래부터 나쁜 사람은 없애야 소립니다. 환경에 따라서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생각이 자기를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한생각이 자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 한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인지 모릅니다.

이조 시대 어느 때라고 봅니다. 이조 시대 패스님네들이 탄압을 받고 그러니깐은 샷갓을 쓰고 결

국은 머리를 기르고선, 어느 산골에다 토굴을 파고 도반들과 거지처럼 얻어먹어 가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항상 탁발을 하러 나가면서도, 한 고비를 넘기고 산을 넘고 이리다보면... 이걸 잘 음미하셔야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지금 연구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산을 넘고 가다보면 아주 깊은 웅덩이가 있어서 사람이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뱀도 그 웅덩이에 빠지지만 하면 나오지 못해, 캄캄한 암흑 같은 곳이니깐. 그래 가는 데마다 발을 옮겨놓는 대로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가다가 또 건져주고 '에야! 너희들을 건져주면 나중에 또 나를 못살게 굴지는 않겠는가?' '절대, 생명의 은인이신데, 날 건져줬는데 어떻게 해하리까?' 그래서 건져주고 건져주고. 그런데 다 건져주고 나니깐 전부 자기의 부하가 된 겁니다. 사람도 마지막에 건져주고, 사자도 건지고, 호랑이도 건지고, 뱀도 건지고 원숭이도 건지고, 다 건진다 말이야. 그렇게 건지다보니까 전부 자기 군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구렁이에 사람이 있는데 구렁이에서 아우성을 치는 걸 건져려고 하니깐 뱀이 있다 하는 소리가, 사자도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머리 검은 짐승은 도대체 남의 은공을 몰라! 그러니 저렇게 빠질 때는 다 여떠한 죄상으로 빠진 거다.' 이러는 거야. '우리로 그렇지만 사람은 나오기만 하면 꼭 당신에게 해를 줄 겁니다.' 이러거든. "그렇지만 아

우성을 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는가, 인간으로서..." 하면서 하는 말이 "언제 적의 죄로서 나를 해할까봐 무서워서 건져주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만약에 저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저 모습이나 내 모습이 틀어 아니라는 걸 안다면 건져주고 가야 하지 않느냐?" 하고 말을 하면서 "너도 예전에 그러했지 않느냐?" 하고서 말을 하니깐 "그렇습니다." 하고선 참, 울었습니다.

그렇게 건져주고 나서 회적회적 바가지에 조금 얻어가지고 왔죠. 어느 날 또 얻으러 나갔는데 한 집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자기 은사를 찾아다니며 기도를 드리고 불공드려면 대감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도저히 그 많은 식구들을 얻어

22면으로 계속

한생각이 일체 만법을 다

들이고 낼 수 있는 회전의 근본 원력!

능력이 제각각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기본적인 신앙을 절대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외국의 강대국에서 또는 약소국에서도 그런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지만 한계가 있다. 어디로 인해서 이렇게 빠져야 되느냐? 유전과 무전, 즉 말하자면 유(有)와 무(無), 유(有)와 무(無), 무생(無生)과 유생(有生), 이 모두가 어떻게 해야 회전을 할 수 있느냐, 광대무변한 연구를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 데에 도달해서 있으니만큼,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탐지나 콤포다 등 다섯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고, 여섯 가지 중에 책정기가 누진통이라

결리지 않고 결립이 없을 때에 비로소 다섯 가지 구슬을 얻을 수 있는데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굴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로부터 금강주입니다. 이것을 대충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나는 무슨 책을 봐서 이런 얘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허허허. 그러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강주 하면 이렇듯이 육바라밀에 속합니다. 보살행으로서 들어가는 활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또 '금강주에서 그렇게 굴릴 줄 알고 여여하고 결립이 없다면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첩보가 가득 차 있다.' 이런 건, 여러분이 주인공의 뜻을 알아서 굴릴 수 있다면 바로 첩보라는 것입니다. 첩보! 전체가 돌아야 된 첩보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모습 없는 모습들,

龍潭堂 明虛 大禪師 49재 안내

龍潭堂 明虛 大禪師께서 2007년 1월 26일 14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중도굴에서 世緣 離盡하시었습니다.

큰 스님의 장례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월정사 주지스님 이하 강원지역 사부대중 스님들에게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禮를 올리며 49재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화엄문도회 스님들은 무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재 일정 (매주 목요일)

순서	일자(양력)	장소	연락처
1재	양력 2월 1일	전남 여수 흥국사	061)685-5633
2재	양력 2월 8일	전남 구례 천은사	061)781-5050
3재	양력 2월 15일	충남 금산 태고사	041)752-4735
4재	양력 2월 22일	고양시 선재정사	031)966-3046
5재	양력 3월 1일	고양시 상운사	02)387-4731
6재	양력 3월 8일	경북 예천 법흥사	054)653-7714
7재	양력 3월 15일	전남 구례 화엄사	061)783-7600

불기 2551(2007)년 1월 29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 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宗三 화엄문도회 일동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

정토불교대학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정토불교대학이 2007년 2월 27일(화)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 개강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지 지식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불자님들의 삶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될 정토불교대학에서 법륜스님의 살아있는 법문을 만나보십시오.

▶ 2월 27일 - 12월 11일 매주 화요일 1년 과정, 영상강좌로 진행합니다.

	지역법당	문의처	교육시간	교육내용	
매주 화요일	서울 정토불교대학 (주/아)	02)587-8993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적불교사상 -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처되는 길 ● 부처님의일생 - 인간뫄다 그 위대한삼 ● 근본불교 -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소멸하는길 ● 불교변천사 - 불교사 사회역사 변화와 불교변천 	
	부산동래 정토불교대학 (주/아)	051)557-2746			
	마산 정토불교대학 (주/아)	055)247-8991			
	울산 정토불교대학 (주/아)	052)245-8995			
	대전 정토불교대학 (주/아)	042)253-8990			
	청주 정토불교대학 (주/아)	043)284-5951			
	광주 정토불교대학 (주/아)	062)511-8990			
매주 수요일	정읍 정토불교대학 (주간)	019-308-2731	오전 11시 오후 8시 오후 6시 30분 오후 7시		
	김천 정토불교대학 (야간)	017-530-4311			
	제천 정토불교대학 (야간)	043)648-0083			
	제주 정토불교대학 (야간)	016-739-7885			
	부산해운대 정토불교대학 (주/아)	051)747-9997			오후 6시 30분
	대구 정토불교대학 (주/아)	053)753-8993			

● 정토불교대학 특전

- ◇ 초심자 입문교육
- ◇ 기도정진 및 나시기
- ◇ 해외법회 - 사찰순례
- ◇ 수행경험 및 법사님 상담
- ◇ 특강수련
- ◇ 졸업수련실시
- ◇ 봉사활동 및 환경 · 통일 · 복지특강

● 모집안내

- ◇ 접수기간: 2007. 3. 6일 화요일 까지
- ◇ 대상: 바른불교를 찾고자하는 사람은 누구나
- ◇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사진2매
- ◇ 등록비: 12만원(1년제) ◇ 문의: 각 지역법당 www.jungto.org



정토회
Jungto Society